

“한잔 짬이야”...되살아난 ‘음주운전 망령’

운창호법 이후 반박 감소했다가 연말연시 맞아 다시 급증세
만취운전 교통사고 잇따라
광주경찰 음주와 전쟁 선포
밤낮 구분없이 강도높은 단속



지난 5일 밤 10시께 광주시 광산구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던 A(34)씨의 SUV 차량이 길가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추돌한 뒤 후진하던 중 커피숍으로 돌진해 유리벽을 부수고 멈춰서 있다.

광주에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운창호법’ 시행 후 한동안 주춤했던 음주운전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금지 캠페인과 강도 높은 음주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부산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진 운창호씨의 사고를 계기로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인 운창호법이 시행 이후 두 달간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감소했다.

광주에서 올 7월과 8월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4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02건)보다 49.3%나 감소했다. 하지만 불과 2개월여 만에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증가세로 돌아서 전년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운창호법 시행 후 광주지역의 올해 월별 음주운전 단속건수를 보면 7월 201건, 8월 256건으로 두 달간은 200건대에 머물렀으나, 9월 381건, 10월 382건, 11월 462건 등으로 매달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음주운전 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실제 지난 6일 밤 10시께에는 광주시 광산구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만취한 A

(34)씨가 몰던 SUV 차량이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사고 직후 A씨는 차량을 멈추지 않고 인도 방향으로 후진하려다 커피숍 유리 벽으로 돌진했다. 다행히 유리 벽 주변에는 손님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치(0.08%)를 넘어선 0.098%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밤 10시 30분께에는 목포경찰서 소속 B경정이 광주시 남구 효덕교차로 인근도로에서 운전면허 정지수자인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같은 날 밤 11시40분께엔 광주시 북구 용봉동 한 교차로에서 쏜다 차량을 몰던 C(23)씨가 들이받은 마세라티 차량이 인도로 밀려 올라가 횡단보도 옆 철제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로 만취상태였다. 같은 달 22일 새벽 1시 25분께엔 광주시 서구 유덕동의 한 도로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로 아버지의 승용차(K7)를 몰던 D(17)군이 길가에 주차돼 있던 2억원 상당의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의 뒤를 들이 받고 전복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금지 캠페인과 함께 밤낮 구분없이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개정돼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제2 운창호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0.10%에서 0.08%로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수준도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상향됐으며, 사망 사고를 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광주 ‘스쿨 미투’ 교사 2명 항소심서 감형

법원 ‘범행 반성·피해자 합의’

고교 제자들을 수년간 성희롱·성추행한 ‘광주 스쿨 미투’ 사건의 교사 2명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는 형량이 줄었다. 광주지법 형사1부(고법판사 김태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여고 교사 A(58)·B(59)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올바른 인격을 형

성하도록 교육하고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교사들이 다수의 제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A씨와 B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범행으로 학교에서 파면 처분을 받고 교직 생활을 그만두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학생 28명을 상대로 49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학생 15명을 26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공무원에 뇌물 준 화순군산림조합장 항소심도 실형

관공급사 청탁을 위해 공무원에게 수천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전남 화순군산림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현)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화순군산림조합장 A(64)씨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2년보다 4개월 줄여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벌금 2690만 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원에 준하는 조합장임에도 조합 비자금용 조성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으며 직원들로부터 승진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았고”고 지적한 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조합의 사업구조 개선을 위

해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사 청탁 대가로 직원들에게 받은 뇌물을 모두 반환한 점, 추징금 2690만원을 예납한 점, 조합 임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화순군이 발주한 수만리 생태숲 공원 공사 등과 관련해 화순군 공무원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조합 사업비를 업체에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회수해 비자금 2억 2900만원을 조성한 혐의(산림조합법 위반)와 2016년 12월~지난해 8월 인사 청탁을 받고 직원 6명에게 289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캐럴 도심 곳곳서 마음껏 울린다

현재 “소규모 매장서 무료로 트는 음악 저작권 침해 아냐”

올해엔 크리스마스 캐럴을 충창로 등 도심 곳곳에서 마음껏 들을 수 있게 됐다. 소규모 매장 등에서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상업용 음악을 틀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일 음악 저작물을 관리하는 A사단법인 등이 저작권법 29조 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저작권법 29조 2항은 청중이나 관중에 게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경우 상업용 음반이나 영상물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연·재생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서 조항 등을 통해 대규모 점포

와 단란·유흥주점 등 일부 매장은 마음대로 저작물을 틀지 못하게 정해 놨다. 예매한 단서조항 때문에 연말이면 도심 곳곳을 울리던 크리스마스캐럴 등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현재는 “해당 조항이 재산권의 원칙적 제한 및 예외적 보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입법권자가 지적재산권자의 재산권 보장과 공공의 문화적 혜택 향유라는 공익이 조화롭게 달성되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이 조항으로 인해 상업용 음반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지적재산권자 등이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헌법상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현재 “아동·청소년 추행범 신상정보 등록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을 추행해 유죄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A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경찰에 신상

정보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 출입국사실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경찰과 연 1회 직접 면담 등의 방식으로 등록 정보 진위 등을 확인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신상정보 등록에 따른 기본적인 제한 범위는 제한적이며,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크다”면서 출신 신고 의무 부여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잇단 어선 충돌사고 3명 사망

전남 해상에서 ‘운항 부주의’로 인한 어선 충돌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지난 7일 오전 6시 45분께 선장 A(49)씨가 운항중이던 낚시배(9.77t급)가 완도군 신지대교 교각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 2명이 머리와 허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낮 12시30분께에는 고흥군 소록도 남쪽 500m 해상에서 연안 통발어선 B호(4.87t급)가 조업을 마치고 입항하던 연안 북합어선 C(1.09t급)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다. 이 사고로 C호에 타고 있던 어민 D(64)씨가 바다로 떨어져 선원들에게 구조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제자 금태섭에 대한 조국 심정이 배은망덕?’ ...고교 한문시험 논란

○여수의 한 고등학교 기말고사 한문시험에서 정치적 이슈를 연상하는 문제가 출제돼 논란. ○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여수의 한 고교 기간제 한문 교사 A씨는 지난 3일 2학년 기말고사 한문 시험에서 ‘조국 제자 금태섭 언행 불일치’라는 신문 기사를 예문으로 제시한 뒤, 조국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고 의원에 대한 심정을 나타

낸 적절한 사자성어를 묻고 ‘배은망덕’을 정답으로 채점했다는 것. ○한문 시험 내용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하면서 논란이 됐고, A교사는 “한문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시사성 있는 문제를 내려고 했던 것으로,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의도와 달리 학생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준 것 같아 학생들에게 사과를 했다”고 해명. /박기용 기자 pboxe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7개>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포털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강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9타경 66492	1	북구 유림로175, 제109동 제2층 제204호 [아파트]	아파트	160,000,000	
	1	동구 남문로555, 1동 12층 1202호 [홍산동]	아파트	244,000,000	
2019타경 68092	1	다보애주상복합아파트 71,728㎡	아파트	244,000,000	
	1	곡성군 옥과면 합림리 584 1574㎡	답	109,596,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지적도상생지
2019타경 1891	1	동소 585 1064㎡	답	109,596,000	
	2	동소 586 1824㎡ 동소 587 2251㎡ 동소 585-1 2360㎡ 동소 585-3 621㎡	답	7,452,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지적도상생지
2019타경 8595	1	곡성군 삼기면 수산리 394 906㎡ [공유자유의지분3분의1전부]	답	3,722,02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지분매각, 공유자유산매수권행사1회로제한, 면적1,2,5명지
	2	화순군 북면 송산리 11-1 764㎡ [공유자유의지분384분의18전부]	전	927,99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지분매각, 공유자유산매수권행사1회로제한, 면적1,2,5명지
2019타경 9512	1	곡성군 삼기면 수산리 394 906㎡ [공유자유의지분3분의1전부, 면적외비보하우스1동소재, 북쪽경계지점메타인접유건물일부소재]	답	7,609,750	지분매각, 공유자유산매수권행사1회로제한
	1	곡성군 삼기면 수산리 394 906㎡ [공유자유의지분3분의1전부, 면적외비보하우스1동소재]	답	9,566,73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지분매각, 공유자유산매수권행사1회로제한, 면적6명지
2019타경 9598	1	동소 612-1 4㎡ [목책1과지분동일]	도로	15,393,18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지분매각, 공유자유산매수권행사1회로제한, 면적6명지
	2	동소 612-2 21㎡ [목책1과지분동일] 동소 674 536㎡ [목책1과지분동일] 동소 898-13 2807㎡ [목책1과지분동일]	도로 답 답	15,393,180 15,393,18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지분매각, 공유자유산매수권행사1회로제한, 면적6명지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강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9타경 9925	1	남구 노대동 383-1 110㎡	대	771,338,000	일괄매각
	1	동소 신 154 892㎡	답	771,338,000	
2019타경 10109	1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540 1309㎡	답	88,836,000	일괄매각, 목책1토지경계상 [옥과리 78-4번지]연교미상분묘소재
	1	동소 543 2729㎡ [물건번호1: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88,836,000	
2019타경 10765	1	화순군 도암면 천대리 245-12 2034㎡ [공유자유산추출지분4분의1전부,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10,678,500	지분매각, 공유자유산매수권행사1회로제한
	1	광산구 신창동 77-70 2175㎡ [현황상잡종지 [야적정] 및 일부전, 남측일부도로이용중]	답	1,261,50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매각제외비비할수 [2토]소재
2019타경 66737	1	남구 월산동 89-15 132㎡	도로	31,812,000	
	1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393-4 291㎡	대	158,595,000	토지매각, 제시외건물매각제외
2019타경 68788	1	장성군 북일면 문암리 94 194㎡	학교용지	1,369,283,000	일괄매각, 제시외
	1	동소 94-1 194㎡	학교용지	1,369,283,000	농성, 농성설비보함, 목책1-3,5공부상지목학교용지대대이내현황상도로, 목책7,8,10-13현황상도로, 목책6,9,15현황상도로, 목책7,8,10-13현황상도로, 목책17지은남동축목, 직암장도로, 목책18관리실 [사무실및류개실]사무실용중
2019타경 2085	1	동소 96-5 122㎡	대	1,369,283,000	
	1	동소 97-1 1579㎡	대	1,369,283,000	
2019타경 62391 [중복]	1	동소 97-4 38㎡	학교용지	1,369,283,000	
	1	동소 97-10 1613㎡	학교용지	1,369,283,000	
2019타경 62391 [중복]	1	동소 98-3 44㎡	학교용지	1,369,283,000	
	1	동소 110-1 1571㎡	학교용지	1,369,283,000	
2019타경 62391 [중복]	1	동소 110-15 237㎡	학교용지	1,369,283,000	
	1	동소 113-3 160㎡	학교용지	1,369,283,000	
2019타경 62391 [중복]	1	동소 113-8 75㎡	학교용지	1,369,283,000	
	1	동소 800-2 109㎡	도로	1,369,283,000	
2019타경 62391 [중복]	1	동소 800-6 20㎡	학교용지	1,369,283,000	
	1	동소 800-7 30㎡	도로	1,369,283,000	
2019타경 62391 [중복]	1	장성군 북일면 신흥로 897 [주권축출제] 990㎡ 제시외 남장설비	창고시설	1,369,283,000	
	1	동소 897 [주권축출제] 56㎡	창고시설	1,369,283,000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강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9타경 12945	1	사용본거지:나주시 남평동 산남로 2911 [면적1700본거지2호] 등록번호 :9532484 처형:광명하이브2.4층크레인집계차 연식:2012	건설기계	52,000,000	보관장소:남구송원로124-3
	1	사용본거지:나주시 월평3길 17 510동 706호 [빛가람동, 빛가람NH5단지아파트] 등록번호:28지0299 처형:그랜저 연식:2011	자동차	8,000,000	보관장소:광주시광산구신성동156현대주차장
2019타경 69057	1	사용본거지:광주 동구 중앙로 307-1 2층 [계림동] 등록번호:39주0297 처형:산타페(SANTAFE) 연식:2016	자동차	21,000,000	보관장소:광산구산정동156현대주차장

2019. 12. 9.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상익